

A형 구제역 확산 우려속 백신물량 부족

바이러스 퍼질 시 전국의 돼지 1100만 마리, 마땅한 대책 없어

구제역 발생이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O형'과 'A형' 2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축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A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돼지는 사실상 A형 바이러스에 무방비인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3일 추가 발생을 포함해 총 9건의 구제역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첫 발생지인 보은에서만 7건이 발견됐고, 정읍 1건, 경기도 연천에서 1건이 나타났다. 보은·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고, 연천은 A형으로 2가지 혈청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축산 현장에서는 O형과 함께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에는 A형과 O형의 2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돼지는 O형의 단가백신만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 농가들이 그동안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해 왔더라도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전국의 돼지 1100만 마리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다.

돼지는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소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양돈 농가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한 수의사는 "O형 구제역의 경우 그동안 백신을 했기 때문에 어

는 정도 대비가 돼 있지만 문제는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라며 "소와는 다르게 돼지는 살처분 과정에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분출되는 만큼 A형 구제역이 돼지로 옮겨오게 되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A형 백신 재고량은 A형 구제역이 발견된 경기도 연천군 및 인접 시군 소에 사용하고 남은 99만 마리 분으로, 소 일제접종을 하기에 부족한 물량이다.

이에 정부는 소에서 A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과, 돼지로 A형이 퍼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백신 제조사인 영국 메리알사에 O+A형 백신의 긴급 수입을 요청했으나 15일 현재까지 긴급 백신 공급에 대한 답신을 받

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계약돼 있는 예정량인 O+A형 160만 마리 분이 이달 말이나 3월초에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긴급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백신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돼지로 A형 구제역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에 대한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군산 양돈 농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백신 수급 상황을 농가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농가들이 다른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또한 백신 공급 지연으로 인해 돼지 폐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약속하는 등 축산 농가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전주기업금융센터 개점

전북은행은 15일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에 전주기업금융센터를 개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전북도시가스 김홍식 회장을 비롯해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이날 개점식에서 "전주기업금융센터는 기존

점포와 달리 일반 영업은 물론 PB영업 등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신규고객 창출 및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열악한 도내 경제 여건을 뛰어넘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새싹보리서 지방간 예방효과 규명

농촌진흥청은 새싹보리에 다량 함유돼 있는 기능성물질인 사포나린(Saponarin)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개선하는 효능 또한 탁월하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성준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사포나린의 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및 치료 효능'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알코올과 사포나린을 투여한 다음 혈액을 분석한 결과, 간 손상 지표인 ALT 효소분비가 대조군(알코올 섭취군) 대비 약 2.5배, 중성지방은 약 23% 낮아진 효과를 보였다.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한 다음 나타난 치료 효능 결과에서도 사포나린 투여군의 ALT 효소 분비는 대조군 대

비 약 1.8배, 중성지방은 약 24%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새싹보리는 분말 100g당 최대 1,510mg의 사포나린 성분이 들어있다. 이 사포나린이 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및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핵심성분을 농촌진흥청이 밝혀냈다.

또한, 새싹보리 추출물은 현재 사용하는 간 기능 개선 식품소재인 밀크씨슬, 헛개나무 추출물 대비 알코올성 지방간 경감 효능이 각각 1.5배, 1.8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식량과학원 연구팀은 '사포나린의 간 기능 개선 효능 조성물 제조법'을 특허출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과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가공제품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농관원 전북지원, 농약 잔류 허용기준 강화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 적용으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부터 해당품목 재배 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

참깨·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 등 농약사용 주의해야

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됐으며,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강화된 일률기준에 적용 시에는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경우 참깨와 참다래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일률기준 적용 시 부적합이 되는 경우가 참깨에서 한 건이 있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향후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농관원은 올해부터는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사용토록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완주 소양농협, 전국 최우수 농협 선정 영예

완주 소양농협이 2016년 농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농협으로 선정됐다.

종합업적 평가는 전국 936개 지역농협을 15개 그룹으로 분류해 2016년 추진한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농협의 모든 사업 분야를 종합 평가하며, 소양농협은 농촌형 9그룹 중에서 최고 점수를 득점했다.

또한, 소양농협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연 연속 전국 1위 최우수농협 선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 연속 전국 2위 우수농협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전국 최우수농협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양농협은 농업·농촌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외 시장개방 압력 확대 및 농촌 경제의 침체 등



이바지 했다. 올해에도 직접 지원 금액을 2억8000만원으로 늘리고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모든 영농품목을 농협에서 각 농가로 직접배달을 실시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유해광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고객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좋은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 최우수농협 선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고 직원들과 함께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농가소득 연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접수

전북중소기업청은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해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2017년도 2차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이 대상이나,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시 지원조건은 과

제당 9개월 이내의 개발 기간, 최대 5,000만원(정부 출연금 70% 이내)을 지원한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택 청장은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청 등 국가 R&D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2일 ~ 2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ntech.go.kr) 제출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